



제목	Discovering Cyrus: The Persian Conqueror Astride the Ancient World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Mage Pub
발행일	2013. 11. 30.
저자	Reza Zarghamee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784
ISBN 또는 ISSN	978-1933823386

**내용 요약**

이 책은 페르시아의 정복자이자 아케메네스 제국의 설립자, 신화와 역사의 경계선에 있는 키루스에 대한 글이다. 그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페르시아인들은 키루스에 대한 칭송의 글이나 연대기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페르시아의 고고학적 사료와 그리스의 문헌 사료에 주로 의존하였다. 저자는 키루스의 종교, 1만 명의 근위대를 포함한 군대,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광범위한 도로망에 관해 연구하였다. 또 페르시아 제국의 배경, 당시의 소요 상황, 키루스 정책의 뿌리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저자가 보기에 키루스 통치의 배경은 종교, 군대, 상업, 궁정생활 등이었다. 다만 유대교에 대한 조로아스터교의 영향력을 과장하거나 시대착오적이거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독자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가령 이스라엘/유대 대신에 ‘팔레스타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히브리 성경 대신에 ‘구약성경’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스의 연대기 작가인 크세노폰(Xenophon)에 따르면, “키루스는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모든 군주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키루스는에게 해에서 인도까지 페르시아의 세력을 넓혔다. 그는 관습과 종교로 지지와 안정을 확보하였고, 폭정을 피하고자 하였으며, 속주 총독을 통해 효율적으로 통치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키루스는 제국을 통치한 힘, 제국의 조직, 다양한 그룹과의 관계 설정 및 활용에 대범하면서도 치밀한 지배자였다. 그는 정복한 지역의 엘리트와 협력할 때 통치의 효율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다문화 제국을 설립하였다. 그의 통치는 이후 수세기 동안 미래 여러 제국의 모델이 되었다.